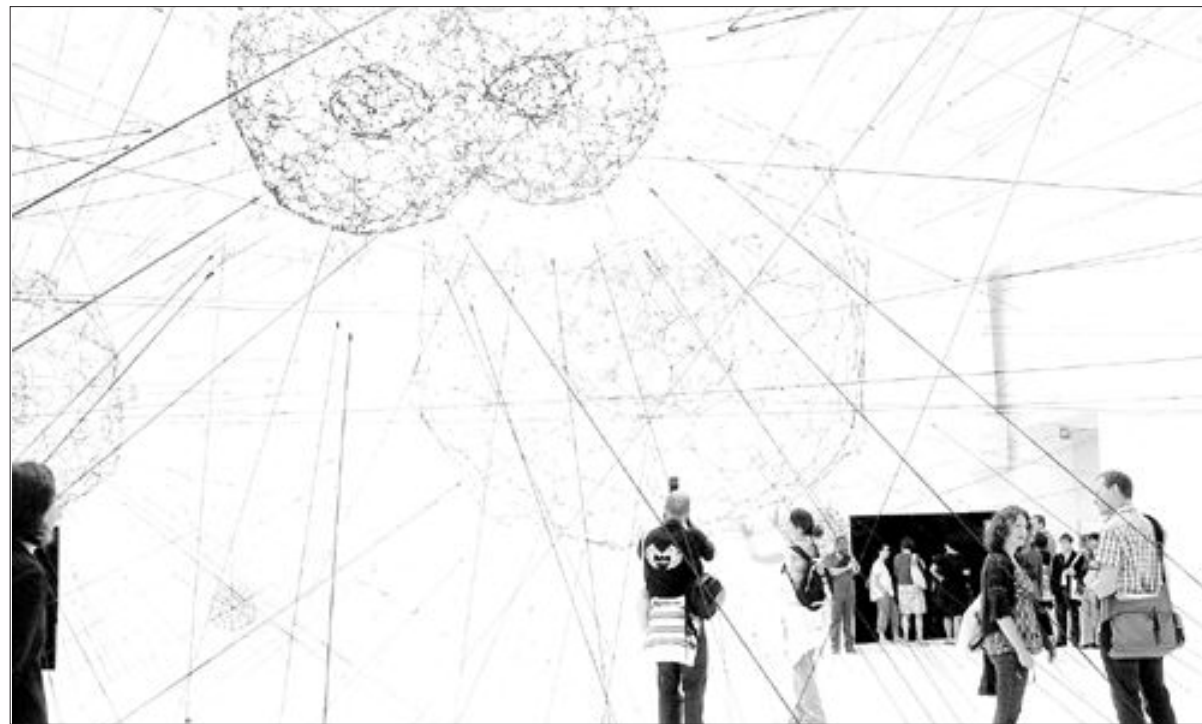


■ 지금 유럽은 미술향연

▶ 53회 베니스비엔날레를 가다

영화와 사진 하나로 만나다



올해로 53회째인 2009 베니스비엔날레(6월7일~11월22일)는 '세상 만들기(Making Worlds)'를 주제로 작가 9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은 아르헨티나의 토마스 시라체노의 설치작품(왼쪽)과 주제관 전경.

광주극장 '히말라야' 서정적 풍광 등 사진전

'영화도 보고, 사진전도 관람하고.' 최민식 주연의 영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이하 '히말라야')을 상영 중인 광주극장에서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사진전에서는 히말라야에서 울로케로 진행된 이번 영화에 참여한 사진가 김영실(미셀 김)씨의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히말라야의 서정적 풍광이 돋보이는 미공개 현장 스틸 사진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4년만에 영화로 복귀한 최민식의 모습이 만날 수 있다.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

프랑스에서 활동중인 김씨는 현재 서울 프랑스로부터 '김영실의 히말라야-히말라야는 눈이다, 바람이다, 별이다-휴머니티, 삶이다'전을 열고 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광주극장에서는 '히말라야'이외에도 기념증을 앞둔 팔과 엄마의 가슴 뭉클한 성장기를 그린 '바

다 쪽으로 한뼘 더', 탈북 청년과 베트남 청년의 동행기를 담은 '처음 만난 사람들', 유준상이 주연을 맡은 '로니를 찾아서', 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상영된다. 사진전만 관람도 가능하다. 문의 062-220-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호남 작곡가들의 대음악제

오늘 광주문예회관

제 11회 영호남대음악제가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영호남대음악제 추진위원회(위원장 함만섭)가 기획한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김재희 곡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3개의 대화', 김민철 곡 '현악 3중주 '대화', 최소형의 피아노곡 '나비 효과', 최수정 곡 '비올라-더블베이스-바이올린을 위한 '희망', 김현 곡 '사랑', 조성복 곡 '그는 내남이었건만' 등이다. 연주자는 강양은·구복희·조영주·성기영·변성호·정지연·신정문·윤소희·김백호·김주관·이성진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

현대시조 정체성을 생각하며...

시조시인 27~28일 광주토론회

박기섭, 유재영, 윤금호, 오승철 등 전국의 내로라하는 시조시인들이 광주에 모여 시조의 발전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인다. '오늘의 시조시인회의'(의장 이우걸)는 오는 27일~28일 히딩크관광호텔에서 '현대시조의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여류 세미나를 개최한다. 27일 세미나에서는 열광교 교수(광주교육대)와 이상욱 교수(창신대)가 '현대

시조에서 정형시의 의미'와 '디카시와 시조 율격'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이우걸 시인의 '꽃', 안도현 시인의 '바닷가 유채꽃' 등 시낭송회를 열어 김광용씨의 '대금산조'연주도 함께한다. 28일에는 화순 운주사 등을 둘러보는 남도 문화 탐방도 준비돼 있다. 문의 016-614-4930. /김대성기자 bigkim@

경기침체 직격탄 '실험정신' 실종

이탈리아 베니스=오광록기자

담론부족에 평이한 작품 국가별 전시 관객들 염증 '광주는 전시의 질로 승부'

지금 유럽은 현대미술의 향연에 빠져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전통의 2009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대 미술장터인 바젤아트페어가 컬렉터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와 바젤아트페어 관람기를 2회에 나눠 실는다.

올해로 53회째인 2009 베니스비엔날레(6월7일~11월22일)는 '세상 만들기(Making Worlds)'를 주제로 90여 명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의 특징은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과 베니스 지역의 대표 상품인 유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대거 선보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험성 강한 작품이 적고, 신작보다는 과거에 전시했던 작품들이 많아 세계 미술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는 '비엔날레'의 본령에는 못미쳤다는 평을 받았다.

▲'물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술의 향연=과거 조선소 자리였던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에 마련된 주제관은 미국의 조앤 조나스, 존 레논의 아내노도 유명한 노노 요코 등 유명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특색 있는 작품이 전시됐다. 주제관과도 27개 국가관, 베니스 전역에 국가참여 28개관과 특별전 51개관이 마련됐다. 프랑스의 '공생업적 부문 황금사자상' 수상자로 노노 요코와 미국의 '전 발레사자' 선정됐고 개념미술가 브루스 나우만이 올해 국가관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주제관은 스웨덴 출신의 대니얼 번버울 예술감독이 기

획했고, 국가관은 국가별 커미셔너들이 자국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다. 가장 인기 있는 전시작은 아르헨티나의 토마스 시라체노가 검은 로프로 만든 거미집 설치조형물과 관람객들은 작품 사이를 오가며, 직접 거미집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러시아관은 아예 귀신의 집으로 꾸몄다.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헛간에 낡은 침대와 책상 등을 배치, 흡사 놀이동산에 놀러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했다. 이번 국가관은 나라별 선호도가 극명했다. 미국관은 브루스 나우만의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지만 일부 국가관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광주비엔날레 출신 작가 활약=1995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 나라 중 두 번째로 국가관을 연 한국은 재목 설치미술가 양혜규의 작품을 선보였다. 주연자가 기획한 한국관은 선 구조물에 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온 빛을 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작가의 베를린 집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했다. 양혜규는 아르세날레 본전시장에도 빨개진조대와 부엌용품, 블라인드 등을 달아 백열전구의 빛이 그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 7점의 '광원'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구정아씨는 작품 앞을 지나가면 나무둥지 모양이 진동하도록 한 설치작품을 전시했다.

지난 2006년 제6회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미야 아나기는 여성의 가슴과 풀어헤친 머리를 강조한 사진 작품을 일본관에서 선보였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인 마이클 알름그린-잉가 드라그세트는 발거벗은 남자의 일상을 표현한 설치작품을 전시했다.

▲광주, 실험성 강한 전시로 승부해야=이번 베니스비엔날레를 참관한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은 "비엔날레의 실험성 강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선지 이번 베니스에서는 고급, 재미있는 작품 일색이다"면서 "비엔날레에서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런 평가는 각국이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등 200여개 가 넘는 미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광주비엔날레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술 시장은 선전 한 유명 비엔날레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에 빠져있을 때 광주비엔날레는 더욱 진지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해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베니스비엔날레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유리 공예 작품을 대거 선보인 것도 광주비엔날레가 고민해야 할 점이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유리공예로 유명한 베니스의 특성을 부각시켜 유리 이미지에 집중한 파라조 카발리 프란체티의 '그라스스트레스(Grasstress)'전을 주요 전시로 내걸었다. 또 도스트들이 관람객들에게 정형화된 작품 실형을 들려주고 전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광주비엔날레와는 달리 관람객들이 스스로 관람을 하고, 마음껏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베니스비엔날레의 자유로운 관람문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김은영 정책연구실장 "광주비엔날레는 작품의 질을 높여 차별화된 전시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oh@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containing financial data, company names, and various statistics. Includes a large logo for 'Km (주)국민법률경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